



영등포 탐사포교원 소년소녀가장 3가족과 결연



영등포 탐사포교원 주지 무량스님(왼쪽 두번째)과 신도들이 5월 14일 진아(왼쪽 세번째) 할머니(왼쪽 네번째)와 후원결연 했다.

초등학교 4학년 진아는 울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어느 가정의 아이들처럼 크게는 울지 않는다. 그냥 눈에 고이는 눈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만 쳐다본다. 진아는 슬프면 마음으로 통곡할 뿐 겉으로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한다.

촌명으로 카드를 사용해 사회에 나오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막노동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 "큰 도움은 못되지만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기 위해 찾아왔다"는 스님의 말에 할머니는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다.

주지 무량스님·신도들 '더불어 살기' 실천 "작은 것이라도 직접 만나 함께 나누자"

들어가면 할머니와 살고 있는 진아네 집이다. 좁은 통로를 타고 들어가면 부엌에 붙은 방하나가 있다. 그곳에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진아네 할머니 우인복씨가 누워있다. 해진 벽지위에는 00사 사할당력이 걸려있다.

영등포 탐사포교원 스님과 신도들은 이어 초등 5년 선호와 초등 1년 민혜이네도 방문해 후원결연을 했다. 무량 스님은 "매달 후원금을 온라인으로 보내고, 시간이 나는 대로 신도들과 결연한 아이들의 집을 방문해 보살필 것"이라며 "신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실천운동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나눔의 저금통 수거현황

한마음선원 중부 경남지원-105만 6천120원
한마음선원 인양본원 1차접수-52만 150원

변복희, 최철환, 홍제길, 오병희, 이필자, 이갑희, 조용준, 임영자, 김중여, 김두식, 박연향, 우병래, 김계인, 이봉순, 신정자, 김차해, 전우증, 김상원, 회화한의원 이상-31만 3천200원

* 현재 1차 저금통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722-4162-3 김원우.

성금 내신 분

이순자-3천원
한경복-10만원

나눔드립니다

우리사회에는 현재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1만4천여명이나 되고 6천여명의 소년·소녀가장, 64만여명의 독거노인 등이 한 하늘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나눔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분양합니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 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 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종교시설에 아름다운가게가 더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영담 스님은 사용하던 벽걸이 시계와 향로, 도자기 등을, 윤팔병 대표는 이날 불상 9구를 기증했다. 아름다운가게 석왕사 원미점은 앞으로 책과 의류, 장난감, 생활용품 등의 물건을 기증받아 판매하게 된다.(032)654-7497

여수영 기자

대원정사, 나눔의 등달기 거리모연



대원정사와 대원불교대학은 5월 16일 공평사거리에서 이웃을 위한 자비의 등달기 거리모연을 전개했다.

사진=김원우 기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연등을 달아주세요"

5월 16일 오후 2시, 일요일을 마친 대원정사 신도들과 대원불교대학 학생들이 서울 종로 공평사거리에 좌판을 깔았다.

본사 나눔의 스티커와 대원정사 대원불교대학 자비의 등 어깨띠를 두른 신도들이 자리가 정된 뒤 마자 지나가는 불자들을 향해 권선하기에 바쁘다. 특히 일요일을 맞아 관광 온 외국인들은 집중공략 대상이다.

16일 서울 종로 공평사거리서 40여 신도, 합창단 공연에 성황 5월 한 달 남산순환도로에 점등

처음에는 그냥 힐끔 쳐다만 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들더니 이내 접수대는 발을 디딜 틈이 없이 불린다. 순간 열심히 목탁을 치는 김범준 상임법사의 얼굴에 화색이 만연해진다.

김 법사는 "신도들에게 거리모연을 제안했을 때 '되겠느냐'며 약간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는데, 의외로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 뿌듯하다"고 즐거워했다.

3시쯤 되자 중고등학생회 회원들이 속속 도착하면서, 홍보봉사의 바톤이 터져되고, 이내 분위기는 활기 그 자체다.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공평사거리는 이제 불자는 물론 외국인, 기독교인조차 그냥은 지나지지 못한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합창단 불자들이 가세했다. 20여명에 이르는 합창단의 찬불가에 맞춰 모연을 외치는 20여명의 신도들의 극성에 이웃을 위한 자비의 거리모연은 호황이다.

대원정사는 본사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과 공동으로 소년소녀가장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의 자비등 3천등을 5월 한 달 동안 남산순환도로에 매달고 있다. 1등 3천원, 문의 (02) 773-9171, 754-1613 김원우 기자

'아름다운 가게' 석왕사에 문 열다

"안 쓰는 물건, 이제 석왕사로 가져주세요!" 재활용품을 기증받아 판매한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비영리재단 '아름다운 가게' (공동대표 박성준·손숙·윤팔병)가 5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석왕사(주지 영담) 내에 문을 열었다. 전국 2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게'가 사찰 내에 매장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개막식에는 석왕사 원미점 명예점장으로 위촉된 영담 스님과 아름다운가게 손숙·윤팔병 공동대표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사찰 매장 '1호점'...19일 개점 윤팔병 대표 등 애장품 기증



석왕사 내에 개원한 아름다운 가게.

영담 스님은 축사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석왕사 내에 아름다운 가게가 문을 열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석왕사 원미점이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손숙 대표는 감사인사를 통해 "물건을 아껴 쓰는 '나눔과 순환' 운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현대불교와 좋은 벗 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 벗 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들에게 '불성'을 가꾸어 주는 참된 불사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매달 한번씩 동참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아름다운 사연을 본지에 지속적으로 소개.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이렇게 참여하세요

-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증가에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주세요.
-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시지요.
-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세요. 공양미가 필요한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현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현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시지요.